

한국불교학문고갈역주 권 1

歷代高僧碑文 校譯勘註

【新羅篇】

李智冠



加山文庫

한국불교금석문고감역주 권 1

校勘
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

李智冠



譯註者 紹介

譯註者 李智冠은 1932년 慶北 迎日郡 清河面 柳溪里에서 出生,
1947년 慶南 陜川 海印寺에서 慈雲스님을 恩師로 하여 得道하다.
1955년 海印寺講院 耘虛스님 講下에서 大教科를 卒業하고,
1960년부터 1970년까지 海印講院 講主로 있으면서 後學을 養成했다.
이어 海印寺 住持를 歷任하였으며,
曹溪宗 宗會副議長, 東國學院理事 그리고 東國大學校 正覺院長, 佛教大學
長, 教育大學院長 등을 거쳐 第11代 東國大學校 總長을 歷任하였다.
현재 法寶宗刹 海印寺住持와 社團法人 國一法藏 理事長, 伽山佛教文化研究院
院長으로서 韓國佛教의 學術文化 振興에 힘쓰며 著述活動에 임하고 있다.

著 書

四集私記·楞嚴經略解·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要經序說
南北傳六部律藏比較研究·比丘尼戒律研究·信行龜鑑·信行365日
信行日鑑·曹溪宗史·伽倻山 海印寺誌 外 多數

韓國佛教金石文校勘譯註 卷一
校勘
歷代高僧碑文
譯註

판권

1993년 2월 25일 초 판 인쇄
1993년 2월 25일 초 판 발행
1994년 4월 10일 개정판 발행

펴낸이 李 智 冠
펴낸곳 도서출판 伽山文庫

등록 제6-116호(1990. 1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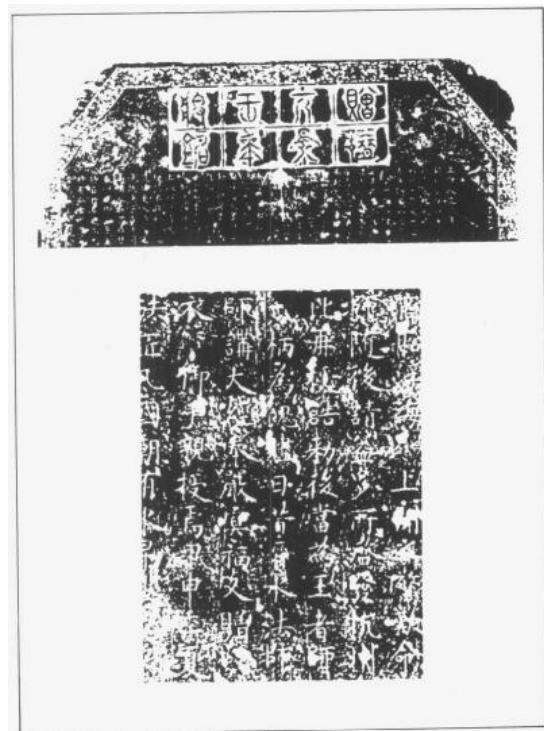
보급처 社團法人 國一法藏
伽山佛教文化研究院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
TEL. 765-9602 ~ 3 FAX. 765-5673

ISBN 89-85903-02-0-94900 값 12,000 원

校勘
譯註 **歷代高僧碑文**

[新羅篇]

李智冠



伽山文庫

畫報 / 河東 雙谿寺 眞鑒禪師碑와 碑文

쌍계사 진감선사 비는 이른바 四山碑中의 하나이다. 四山碑文은 모두 최치원의 作品이지만, 특히 이 진감선사 비만은 최치원이 짓고, 쓰고, 篆額까지 自筆이므로 더욱 유명하다. 本碑文의 眞蹟은 비석 탁본이 아니다. 지금 으로부터 약 300년전 이미 石欄字缺하여 관독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때 당시 大謀領事의 주선으로 복원하여 崇禎紀元 98년 乙巳(1725)에 刻板한 木板本에 依한 것이며, 하동 쌍계사에 있다.







有唐新羅國故知異山雙谿
寺 教謚真鑒禪師碑 銘 并序

前西國都統巡官承務郎
侍御史內供奉賜紫金魚袋臣崔致遠奉

撰并書篆額

夫道不遠人人無異國是以

東人之子為釋為儒必也西浮大洋重譯從學命寄剗木心懸寶洲虛往實歸先難後獲亦猶采玉者不憚崛丘峻採珠者不辭驪豁之深遂得慧炬則光融丘乘嘉者則能味談六籍競使千門入善能今國興仁而學者或謂身

委與閼里之設教也分流異體園鑿方枘互相爭循守滯一隅嘗試論之說詩者不以言害辭不以辭害志禮所謂當謂如來之揆故盧峯慧遠著論謂周孔發致雖殊所歸一體極不兼應者物不能兼受

故也沈約有云孔發其端釋窮其致真可謂識其大者始可與言至道矣至若佛語法玄之又玄名不可名說終無終無說雖云得月捐或坐類係風景難行捕然陳遐自近取辭何傷且尼父謂門弟子曰乎欲無言天何言哉則

彼淨名之默對文殊善逝之
密傳迦葉不勞鼓舌能叶印
心言天不言捨此奚適而得
速傳妙道廣耀吾鄉豈異人
乎禪師是也禪師法諱慧昭
俗姓崔氏其先漢族寇蓋山
東隋師征遼多沒驪貓有降
志而為遐玷者爰及

聖唐囊括四郡今爲全州金
馬人也父曰昌元在家有出
一家之行母顧氏嘗畫假寐夢
一梵僧謂之曰吾願爲阿婆
謂母方言
幾娘禪師焉生而不喘迺風
挺銷聲息言之勝牙也既亂
從威心燒葉第香采花爲供

或西嚮危坐移晷未嘗動容
是知善本固百年劫前所栽
植非可跂而及者自壯泉弁
志切反哺跬步不忘而家無
斗儲又無尺壤可盜天時者
口腹之養惟力是視乃裨販
媿隅為贍滑甘之業手非勞
於結綱心已契於忘筌能豐

啜菽之資允叶采蘭之訓暨
鍾囂棘負大成墳迺曰鞠育
之恩聊將力報希微之育盍
以心求吾豈匏瓜壯齡滯跡
遂於貞元廿年詣歲真使求
為榜人寓足西洋多能鄙事
險如轔揮楫慈航超截苦
海及達彼岸告國使曰人各